

제명통지서

2024년 5월 10일

김선미 귀하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2024년 5월 9일 제 66차 이사회에서 귀하에 대해 징계심의 절차를 갖고 '제명'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귀하께 통지합니다.

심사 과정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회는 2024년 3월 21일에 개최된 제 65차 이사회에서 당연직 이사 및 선출직 이사, 전직 이사 등으로부터 상정된 귀하에 대한 징계심사 요청을 토의한 결과, 협의회 수호 및 낙스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귀하에 대한 징계심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사회 의결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김미경 외 8인)를 구성함.

특별조사위원회는 취합된 내용을 토대로 2024년 4월 27일과 5월 5일 회의를 갖고 귀하의 총회장 축출 주도, 임원 협박행위, 협의회 업무방해, 낙스 신뢰도 및 명예 실추 등 징계 항목을 이사회에 상정함.

징계 결정

2024년 5월 9일 제 66차 이사회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상정안을 심의하고 제명을 의결함.

징계 사유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임기를 마친 총회장에게 '직전총회장'이란 타이틀과 함께 당연직 이사 직책을 부여함으로써 후임 총회장이 안정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성원하고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선미 씨는 협의회 취지에는 상반되게 집행부 출범초기부터 '직전총회장'이란 영향력으로 현 총회장의 운영방식 및 집행부의 결정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사들-특히

자신이 총회장 당시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역협의회장들을 선동하여 총회장 이사장 축출을 주도하며 현재의 분규사태를 유발했습니다.

아울러 김선미 씨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집행부 임원에게 총회장의 업무에 협조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나아가 임원 개인을 협박하는 이메일을 보내 심각한 업무방해를 했습니다.

또한 김선미 씨는 총회장의 승인도 없이 협의회 유관단체들을 접촉하며 집행부 사업에 대해 마치 자신이 영향력 있는 인물인양 행세하며 현 협의회 집행부에 관한 거짓정보를 퍼뜨리는 등 지속적으로 파괴적인 행위를 일삼아 왔습니다.

[별첨]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내용

[별첨]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내용

1. 직전 총회장의 직권남용과 도덕성 결여

1) 전례없는 총회장 직후 지역협의회장 재취임

미시간지역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것을 발판으로 총회장에 당선되어 임기를 마친 자가 총회장 임기를 마치자마자 또다시 미시간지역협의회장으로 재취임. 이는 낙스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례이며, 해당지역협의회를 좌지우지하며 개인의 전유물처럼 이용하고 있음을 드러냄. 이는 낙스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김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용인되지 않는 파렴치 행위임.

2) 직전총회장 직권남용 및 심각한 업무방해

협의회가 직전총회장이란 타이틀을 부여했음에도 미시간협의회장직을 겸직하며, 지역협의회장들의 의사결정을 쥐락펴락하고 또 현직 때의 영향력을 활용해 대외 협력기관들에게 현 집행부에 대한 거짓정보를 제공하며 협력하지 말 것을 종용함.

3) 비상식적 이사추천 등 편만들기 편법동원

미시간지역 선출이사 추천을 뉴저지 거주 강용진 씨를 추천해 파장을 일으켰고 이사회에서 선출이사로 인준되지 않자 같은 회기년도에 또다시 선출이사로 추천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임.

• 증거자료: 제 54 차 이사회회의록(2022 년 11 월 13 일)

4) 총회장 이사장 축출 선전선동

직전총회장이자 현 미시간협의회장이란 타이틀로 협의회에 존재하지 않는 조직체 '지역협의회장단'을 만들어 지역협의회장들을 오도하고 현 집행부 성토를 위한 연명서에 서명을 종용하는 등 분란을 선동.

아울러 손애자 씨와 더불어 자신들이 주도한 총회장 이사장 심사요청을 이사회 심의나 승인도 없이 자신들이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있는 회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죄를 덮어씌움. 모든 과정에 이사회 심의/승인이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최종 심사에 이르기까지 이사회를 한 번도 거치지않는 등 불법절차를 주도함.

이사회 분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구성한 비상대책소위원회에 마저 위원으로 참여, 분란해결이 아닌 분란증폭으로 소위원회를 무산시킴. 당시 이사회는 비상대책소위원회를 지역협의회장 측에서 추천한 2 인, 총회장과 이사장 측이

추천한 2 인으로 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중립적 이사들을 추천해서 분란을 해결하려 했으나, 피추천 자격이 없는 김선미 씨가 소위원회에 참여한 것 자체가 위반.

5) 총회장 승인없이 대내외 협력기관 연락처 및 담당자 정보를 무단 사용하여 낙스 신뢰 실추. 대내외 협력기관 (재외동포청 및 정부기관, 교육 및 언론, MOU 유관 단체)과 협의회 관련 업무협의를 위해서는 총회장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마치 협의회가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듯 행동하여 유관기관들에게 혼란을 끼치고 낙스의 신뢰도를 심각히 실추시킴.

6) 직전 총회장으로서 집행부내 내분을 중재하고 해결책 모색보다 내분을 키우는 불쏘시개 역할로 낙스의 모든 회원교들에게 혼란과 분란을 고조 시킨 행위

- 증빙자료: 2023 년 5 월 25 일, 27 일, 6 월 1,2 일자 이메일

2. 회원비 납부 의무 불이행

헌장 2 장 제 8 조 1 항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미 전역의 회원교 학교간의 혼란조성

1) 직전총회장의 권위를 이용하여 지역협회의 회장들을 포섭하고 갈등과 불협화음을 만들어 현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한 행위

2) 제 60 차 이사회를 여론몰이하어 오늘의 혼란과 분규를 유발한 행위

- 증거자료 1: 지역협의회 회장단 결의문 1-2023 년 1 월 16 일자 이메일
- 증거자료 2: 지역협의회 회장 결의문 2- 2023 년 8 월 2 일자 이메일
- 증거자료 3: 제 60 차 이사회 회의록(2023 년 9 월 27 일)

3) 분규 단체라는 오명을 얻어 교사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행위

4.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명예 손상과 분쟁 주동 행위

헌장 2 장 9 조(상벌) 2 항, 회원자격심사위원회 세칙(제 1 조) 위반 행위-회자위 직권 남용으로 이사장과 총회장을 근거 없는 징계사유로 정권=해임 시키고 제명까지 이끈 행위

- 증거자료: 제 58 차 이사회 회의록

2) 직권을 남용, 거짓 선동 및 협박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반낙스쪽으로 유도, 낙스 분열에 앞장서며 낙스 정상화의 노력을 무산시켜 '분규단체'의 오명을 받게하고 낙스를 파괴한 행위 • 증거자료 1: 제 58, 59, 60 차 이사회 회의록

- 증거자료 2: 미주 지역언론사, 동포재단 언론사 신문 기사
- 증거자료 3: 2023 년 12 월 11 일자 이메일
- 증거자료 4: 2024 년 2 월 9 일자 반낙스 공문

3) 직전 총회장으로서 합법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현 집행부 임원을 협박하고 업무추진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심각한 업무 방해와 인격모독 행위

- 증거자료 1: 2023 년 11 월 16 일자 이메일
- 증거자료 2: 웹간사 이메일 2024 년 3 월 16 일자 이메일

4) 본인이 진행하던 '코리안스펠링비'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집행부의 결정에 사적인 감정을 이입하여 유연비어와 험담으로 협의회 내 분열을 조장하여 급기야는 현 낙스의 분류를 가져온 행위

- 증거자료: 2022 년 11 월 13 일 제 54 차 이사회 회의록

5) 현 낙스 총회장과 집행부를 편취 하고 거짓 루머를 퍼트린 행위

6) 전화, 이메일, 현지방문으로 현 낙스 집행부의 사업을 방해한 행위

- 증거자료: 2024 년 3 월 15 일 추성희 총회장, 권예순 부회장이 김구재단 방문 시 재단의 김혜연 팀장이 '김선미 전 총회장이 재단에 직접 전화를 해서 추성희 집행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여 재단이 집행부와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크다. 사업 자체를 재고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함.

5. 대내외적 재미한국학교협의회의 신뢰도 실추

- 1) 재외동포청, 교육부, 국립국어원등 정부기관과의 관계에 혼란을 조성한 행위
- 2) 국립국제교육원, 국제한국어교육재단, 독립기념관, 독도재단, 김구재단, 종이재단, 반크 등 유관기관에 불법 정보와 루머를 조성하여 낙스 위상을 추락시킨 행위.
- 3) 대내외 신문사를 통한 언론플레이로 결국 분류 단체라는 오명을 얻게한 행위

-끝-